

6-16-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로마서 8:16-18

말씀제목: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이 루시퍼 사탄 마귀의 반역과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 탈취되어 현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사용하여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사람이 마귀로부터 받았던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온 세상에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잡은 자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잠시 사탄에게 넘어갔던 하늘과 땅을 다시 찾으시고 모든 하늘들과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히 1:2)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 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 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마 21:33-42)

이때에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앞으로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마 21:43)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롬 4:13-14)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며 이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갈 3:13-16)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유업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롬 8:16-18)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짐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거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시는 그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1:9-14)

사도 바울은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딤후 2:12)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이십사 장로들의 말을 듣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계 5:9-10)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대인의 남은자들과 회개한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상속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계 21:1-6) 아멘! 할렐루야!